

## ‘경작, 재배’ 합성어의 개념 확장 방식에 대한 고찰\*

조민정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Abstract>

Jo Min Jeong. 2014. A Study on the Way of Concept Expansion about ‘N<sub>1</sub>-Jaebae, N<sub>1</sub>-Kyungjak’ Compound Words. *Korean Semantics, 43*.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which factor makes the differences in concept expansion and productivity of ‘N<sub>1</sub>-jaebae, N<sub>1</sub>-kyungjak’ compound words. Jaebae and kyungjak are predicative nouns which make the compound word with its argument in Korean.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concept expansion and productivity of compound words. Jaebae compound words mean mainly method, but kyungjak compounds means activity, and method.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concepts are originated from the previous understanding of Korean speaker over kyungjak and jaebae activities. What is more the productivity of two compound nouns are different. That reason is which is important in human life, new words which are indicated those thing are made productively. 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at two compound nouns. This study shows that the factor of concept expansion is under ‘previous understanding’ which belongs to language, and the factor of productivities’ change is under ‘the law of proximity’ which belongs to social environments of Korean speaker.

핵심어: 합성어(compound word), 서술성명사(predicative noun), 핵 명

\* 이 논문은 한국어 의미학회 33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기초로 수정한 것이며, 부족한 논문에 토론과 질의로 큰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9-361-A00027)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사(head noun), 논항(argument), 개념 확장(concept expansion), 선지식(previous knowledge) 차별화전략(strategy of distinguish), 근접성의 원리(law of proximity)

## 1. 머리말

### 1.1. 논문의 목적

아래 (1)의 단어들은 단어의 짜임새로 본다면 어기와 어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된다. 어기끼리 결합할 때 거기에는 소리, 표기법과 같은 형태 변화와 함께 뜻이 불투명해지거나 바뀌는 것처럼 의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예문 (1)에서 볼 수 있다.

- (1)
  - ㄱ. 계단 경작: 비탈진 땅에 계단 모양으로 층층이 논밭을 만들어 하는 경작
  - ㄴ. 계단식 재배: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한밭에서 작물을 계단식으로 여러 번 길러내는 일. <<표준국어대사전>><sup>1)</sup>
  
- (2)
  - ㄱ. 버섯 용기에 톱밥과 지렁이똥을 섞은후 계단식재배를 하고 있다.(동아일보, 1979. 11. 21. 6면)
  - ㄴ. 산비탈을 깎아 버를 재배하는 계단식재배(계단식재배법)와 화학비료의 남용이 쌀생산량을 감소시키는(동아일보, 1991. 2. 11. 8면)

또한 ‘계단식재배’가 (2ㄱ)에서는 후행어(‘하다’)로 인해 ‘기르는 일(행위)’로 해석되는 반면 (2ㄴ)에서는 후행어(‘~과 화학비료의 남용’)와 교체검증(‘계단식재배법’으로 교체)을 통해 ‘기르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말은 1970년대에는 주로 ‘행위’를 뜻하다가 1990년대에는 주로 ‘방법’의 뜻으로 사용되면서 의미 변화(행위 → 방법)를 보인다. 그렇다면 ‘계단식재배’가 사

1) 논문에서 다루는 합성어의 목록 및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고, 이하에서는 따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

전의 뜻풀이(1ㄴ)와 달리 실제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양상(2), 즉 합성어의 뜻(개념)이 변하게 된 과정 혹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2)

‘경작’과 ‘재배’는 둘 다 서술성 명사로 자신의 논항과 주로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작’ 합성어는 주로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재배’ 합성어는 주로 ‘방법’을 나타낸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품사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어휘군의3) 하나인 임시합성어인 ‘N<sub>1</sub>^경작’ 역시 ‘행위’를 주로 나타내는 반면 ‘N<sub>1</sub>^재배’ 역시 ‘방법’을 주로 나타낸다(예문 (5’-8’) 참조). 합성어의 뜻이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경우 거기에는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에는 언어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자의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된다.4) 어떠한 요인이 합성어의 의미 변화(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뜻풀이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의 수에서도 ‘N<sub>1</sub>경작(7개)’과 ‘N<sub>1</sub>재배(30개)’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문화가 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현상 및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새말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에 따라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데서 생산성이 변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근접성의 원리). 최근 새로이 등장한 ‘미혼부’는 기존에 있던 ‘미혼모’의 ‘모’를 ‘부’로 대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남자’가 많아지면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생긴 말이다.

- 2) 사전에서의 뜻풀이와 달리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속성재배에서도 볼 수 있다.
  - (1) ㄱ. 속성재배≒속성 재배. 온실, 온상, 비닐하우스 따위를 사용하여 자연 상태로 자라는 것보다 빨리 자라게 하는 재배 방법.
  - ㄴ. 고창군 대산면일대가 노지수박 속성재배를 위해 설치한 비닐터널로 뒤덮여있다.(동아일보, 1995. 4. 27. 30면)
  - ㄷ. 연구에 참여한 하임 박사는 종전의 단기 실험과 달리 이번에는 속성재배(속성재배법)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한겨레, 1996. 12. 23. 13면)
-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N^N’로 표시된 것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합성어와 구 구성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들이다. 예컨대, 본고에서 다루는 것 중 ‘테라스’재배’는 품사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단일한 어휘로 혹은 구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들을 임시 합성어로 보는데, 이들은 의미 변화 및 빈도에 의해 새롭게 합성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 4) Langacker(1987:395)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복합범주)의 구조는 언어사용자의 앞선 경험과 언어활동을 반영하고, 그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수정된다.”고 한다.

위에서 간략히 기술한 것처럼, ‘경작’과 ‘재배’ 합성어가 개념 변화 과정과 생산성이 다른 것을 논의하기 위해 본고는 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 문법과 인지 심리학의 틀을 참고로 하고 생산성의 변화는 해당 어휘들이 사용된 시대별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할 것이다.

인지 심리학자인 진 멘들리(Jean Mendler)에 따르면 지식은 불연속적인 사실들의 열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구조에 따라 조직되고 구성되는데, 불연속적인 사실들이 지식으로 조직되는 데 ① 범주적 혹은 분류학적 구조, ② 행렬적 구조, ③ 연속적 구조, ④ 도식적 구조를 따른다고 한다. 먼저 ①에 의하면 사실들(‘재배, 경작, 농사’ 명사)은 공유된 모양, 기능, 다양한 양상의 유사성으로 관련되고, 둘째, 사실들이 ②를 통해 조직되고 등급 교차에 따라 특징 지워진다. ③에서 항목들은 단일 차원의 방향을 따라 상호 간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예컨대, ‘경작’과 ‘재배’ 합성어들의 생산성의 차이는 시대와 농업 정책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④는 부분-전체의 배치에 따라 구성된다. 예를 들면, ‘창문, 문, 천장, 벽’들은 도식적으로 방의 일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를 구성하는 집합체의 일부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sup>5)</sup> 부분-전체를 이루는 요소는 인접성을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의미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①, ②, ④를 토대로 ‘경작, 재배’ 합성어들의 개념 확장 방식과 생산성에서의 차이를 이들 합성어들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농사, 낚시’ 합성어와 직·간접적인 비교를 하면서 기술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경작, 재배’는 행위의 유사성과 어휘 의미관계에 의해 ‘농사’와 관련성을 가진다. 각 어휘의 뜻풀이(<<표준국어대사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3) 가. 농사: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  
 나. 경작: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음.  
 다. 재배. **식물**을 심어 가꿈.

5) Polkinghome(1988:225-226)에서 재인용.

뜻풀이에서 ‘재배’의 대상은 식물로 ‘농사’의 대상보다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작’은 ‘농사’의 하위 유형의 하나로 ‘농사’와 하위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명사들은 행위를 지시하는 서술성 명사이며 자신의 논항을 선행어(N<sub>1</sub>)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선행어의 선택, 즉 선행어의 의미역에서 ‘재배, 경작’ 합성어와 ‘농사’ 합성어가 다르다. 논의를 위해 사전에 등재된 ‘농사, 경작, 재배’ 합성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개별 어휘에 대한 자세한 뜻풀이는 3장을 참조).

- (4) ㄱ. 같이농사, 건달농사, 팽이농사, 구메농사, 논농사, 반농사, 밤농사, 밭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보습농사, 사밭농사, 쌀농사, 짚농사, 풀농사, 헛농사 (총 18개)
- ㄴ. 사면경작 조방경작 (총 2개)
- ㄷ. 계단식재배, 망실재배, 물재배, 왜소화재배, 무대재배, 작휴재배 (총 6개)

‘N<sub>1</sub>농사’에서 N<sub>1</sub>의 의미역은 대상(4), 방법(3), 도구(2), 장소(2), 불분명(3) 순으로 나타나고, ‘N<sub>1</sub>경작’에서 ‘N<sub>1</sub>’은 방법(2)을 나타낸다. 그리고 ‘N<sub>1</sub>재배’에서 ‘N<sub>1</sub>’은 주로 ‘방법(5)’인데, ‘무대재배, 작휴재배’는 ‘N<sub>1</sub>’의 뜻이 불투명해져서 그 의미역을 논하기 어렵다.<sup>6)</sup> ‘무대’는 본래 ‘무대과’에서 “봉지를 씌우지

---

6) 본고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을 필수성분을 논항으로 보며, 논항이 의미구조에서 가지는 기능(역할)에 따라 ‘대상, 도구, 방법, 장소’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구(instrument)로는 ‘칼, 총’과 같은 것이 해당되고, ‘방법(method)’은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아래 예문을 통해 그러한 차이를 살펴보자.

- (2) ㄱ. 나무를 톱으로 자르다. ≙ 나무를 켜다
- ㄴ. 나무를 도끼로 자르다. ≙ 나무를 패다.
- (3) ㄱ. 사람을 때리다.
- ㄴ. 사람을 구타하다 ≙ 사람을 세계 때리다.
- ㄷ. \*? 사람을 가만히 때리다.

위 문장 (2)의 서술어 ‘자르다’가 도구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톱으로 자르다’는 ‘켜다’로 대치가 되고, ‘도끼로 자르다’는 ‘패다’로 대치된다. 마찬가지로 (3)의 서술어 ‘때리다’가 ‘세계’와 함께 다른 어휘로 대치되고 있다. ‘톱, 도끼’가 서술어의 논항이면서 도구역을 나타낸다고 볼 때, 행위의 방식(방법)을 나타내는 ‘세계, 가만히’ 역시 서술어의 논항

않고”라는 의미만을 가져온 것이다.7) ‘무대’는 넓게 보면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작휴’는 의미역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작휴재배’가 사전에 ‘=이랑 재배’로 풀이되어 있어서 ‘작휴’의 뜻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농사’, ‘경작’, ‘재배’ 합성어에서 ‘N<sub>1</sub>’의 의미역이 다름을 살펴보았다.

‘재배, 경작’ 합성어와 임시합성어가 생산성에서 보이는 차이를 한 눈에 보기 위해 그것들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8) (5)와 (7)은 합성어에 해당되나, (6)과 (8)은 본고에서 임시 합성어로 분류한 것들이다.

- (5) 사면경작, 조방경작( 총 2개)
- (6) 계단^경작, 공동^경작, 단일^경작, 등고선^경작, 이동^경작, 집약^경작, 청부^경작( 총 7개)
- (7) 계단식재배, 망실재배, 무대재배, 물재배, 밀재배, 왜소화재배, 작휴재배 (7개)
- (8) 계약^재배, 계통^재배, 계획^재배, 고등^재배, 노지^재배, 높은이랑^재배, 두둑^재배, 등고선^재배, 무공해^재배, 밀식^재배, 불시^재배, 비닐^재배, 속성^재배, 역제^재배, 역경^재배, 연속^재배, 연화^재배, 온상^재배, 온실^재배, 이랑^재배, 전조^재배, 점목^재배, 조기^재배, 조명^재배, 조숙^재배, 종묘^재배, 직파^재배, 차광^재배, 차폐^재배, 채종^재배, 청정^재배, 초생^재배, 축성^재배, 터널^재배, 테라스^재배, 펠릿^재배, 편의^재배, 하우스^재배, 혼성^재배 (30개)

‘경작’과 ‘재배’ 합성어의 목록은 사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표준국어대사

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의 의미역을 방법역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이 밖에도 ‘건다, 달리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느리게’에 의해 구분된다. 이 경우 ‘**빠르게, 느리게**’ 등이 ‘방법’에 해당된다. ‘방법’을 서술어의 논항(필수논항)으로 설정하고,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의 문제는 부사가 ‘방식(방법)’을 주로 나타내고 기존의 논의에서 ‘부사’를 서술어의 논항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과 함께 ‘방법’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후고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7) ‘무대재배’는 <표준>에 “사과, 복숭아, 배 따위의 과실을 봉지를 씌우지 않고 가꾸는 방법”으로, ‘무대과’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자연 일광 상태로 수확한 과일”로 풀이되어 있다.
- 8) 각각의 합성어에 대한 뜻풀이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자세한 뜻풀이는 3장을 참조.

전>>에 등재된 위 (5, 7)의 ‘N<sub>1</sub>경작’과 ‘N<sub>1</sub>재배’ 합성명사의 수(2:7, 3배 이상) 즉 유형빈도에서 ‘N<sub>1</sub>재배’가 ‘N<sub>1</sub>경작’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합성어가 지시하는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합성어를 의미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보면 아래 (5’-8’)와 같다.

- (5)’ ㄱ. 행위: 사면경작 (총 1개)
- ㄴ. 방법: 조방경작 (총 1개)

- (6)’ ㄱ. 행위: 계단^경작, 공동^경작, 단일^경작, 등고선^경작, 청부^경작 (총 5개)
- ㄴ. 방법: 집약^경작 (총 1개)

- (7)’ ㄱ. 행위: 계단식재배, 밀재배, 왜소화재배 (총 3개)
- ㄴ. 방법: 망실재배, 무대재배, 물재배, 작휴재배 (총 4개)

- (8)’ ㄱ. 행위: 계약^재배, 계통^재배, 등고선^재배, 무공해^재배, 불시^재배, 연속^재배, 연화^재배, 온상^재배, 온실^재배, 접목^재배, 조기^재배, 종묘^재배, 채종^재배, 청정^재배, 편의^재배, 하우스^재배, 혼성^재배  
(총 17개)
- ㄴ. 방법: 계획^재배, 고등^재배, 높은이랑^재배, 두둑^재배, 밀식^재배, 비닐^재배, 속성^재배, 억제^재배, 역경^재배, 이랑^재배, 전조^재배, 조명^재배, 조숙^재배, 직파^재배, 차광^재배, 차폐^재배, 초생^재배, 축성^재배, 터널^재배, 테라스^재배, 펠릿^재배 (총 21개)

위 (5, 6)’의 ‘N<sub>1</sub>경작’은 주로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7, 8)’의 ‘N<sub>1</sub>재배’는 ‘심어 가꾸는 것’과 함께 ‘~를 하는 방법’으로 분화되어 있고, 시기상 후에 만들어지는 ‘재배’ 합성어는 거의 ‘방법’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경작, 재배’ 합성어가 선행어의 의미역과 생산성, 그리고 개념 확장에서 보이는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합성어의 구성 및 의미 전이에 대한 앞선 연구를 살펴보자.

## 2. 합성어의 구성 방식 및 의미 전이

### 2.1. 앞선 논의

‘사면경작’과 ‘조방경작’에서<sup>9)</sup> 합성어를 이루는 두 요소(어기)가 맺는 의미 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합성어를 이루는 두 요소의 의미관계에 대한 앞선 논의로 허웅(1975)과 고영근 외(2008)가 있다. 허웅(1975:93-99)은 합성명사를 그 두 어기의 관련성에 의해서 ① 대등적인 것(밤낮), ② 수식적인 것(뭇골), ③ 한 쪽 어기가 접사에 가까우나 접사가 아니라 명사인 파생적인 것(만아들)의 세 유형으로 세분한 바 있다. 이 논의대로라면 ‘재배, 경작’ 합성어 중 ‘사면경작’은 위의 ②의 수식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조방경작’에서 ‘조방’이 의미상 접사처럼 볼 수 있어 ③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어기가 불투명해지는 것의 처리를 다룬 연구로 고영근 외(2008:250)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합성어의 구성 요소들이 한문이나 중국어에서 단어이나, 한국어에서 불규칙적인 어근의 자격만 가지거나 아예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① 단어+단어(책상, 冊床), ② 단어+어근(상장, 賞狀), ③ 어근+단어(우정, 友情), ④ 어근+어근(노인, 老人)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의미 변화를 인접에 의한 유연성으로 설명한 논의로 池上嘉彦가 있다.

(9)

L(뭇)	a	뭇	①
	a' · b	배의 뭇	②
	a · b'	뭇달린 배	③
	b	배(뭇을 달지 않은)	④

池上嘉彦(1975:236)는 의미 a와 b가 서로 인접적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서

9) 사전에 ‘사면경작=비탈같이’로, ‘조방경작=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들고 주로 자연력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이때 ‘조방’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조방적(粗放的)’(“거칠고 방종한, 또는 그런 것”)에서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②로부터 ③으로 의미가 전이되고, 결국 어휘소 L의 의미 a가 ②, ③의 인접 과정을 통해 의미 b로 전이되었다고 한다. 인접연상은 비유법 중 제유(提喻)와 환유(換喻)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접될 수 있는 두 요소는 제유에 의해 유와 종, 전체와 부분,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원인과 결과 등의 관계를 맺는다. 이때 의미가 전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화자의) 의식의 중심이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지금까지 서술성 명사가 만드는 합성어를 다룬 앞선 논의에서는 서술성 명사가 전체 합성어의 의미를 결정하고, 선행어는 수식 혹은 종속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재배’ 합성어 중 상당수에서 선행어인 ‘방법’이 전체 의미를 결정하며, 그 결과 선행어가 의식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는 ‘농사, 경작’과 다른 양상이다. 그런데 합성어에 대한 앞선 논의들에서 합성 방식의 변화 및 합성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을 찾기는 어려웠다.

합성어 중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닭시’ 합성어가 있다. ‘닭시’ 합성어는 ‘경작, 재배’ 합성어와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는 유형이다. 그렇지만 ‘N<sub>1</sub>닭시’에서 전체 구성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닭시’이지 선행어가 아니다. 또한 ‘닭시’ 합성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즉 개념 분화를 나타내는 것은 언어내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언어내적인 요인에 의해 합성어의 개념 분화(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닭시’ 합성어를 가지고 살펴보자.

## 2.2. 핵명사에 의한 개념 확장 - ‘닭시’ 합성어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N<sub>1</sub>닭시’ 합성어로 ‘릴닭시, 외줄닭시, 활닭시’가 있다. 이들은 ‘닭시질’과 함께 ‘닭시도구’라는 뜻도 나타낸다. 그 밖의 ‘N<sub>1</sub>닭시’는 ‘닭시질’을 나타낸다.<sup>11)</sup>

10) 홍사만(1985:58-59)에서 재인용.

11) ‘N<sub>1</sub>닭시’가 ‘닭시도구’의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닭시’가 서술성 명사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조민정(2013:121-122)을 참조.

‘N<sub>1</sub>낚시’가 ‘낚시질’과 ‘낚시도구’처럼 중의적인 것은 ‘낚시’의 뜻풀이에 기인한다(예문 (10) 참조).<sup>12)</sup> 사전에서 ‘낚시’는 네 가지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N<sub>1</sub>낚시’ 합성어 전체 목록은 각주 12를 참조). ‘낚시’ 합성어의 전체 목록을 ‘N<sub>1</sub>’의 의미역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보면 (11)과 같다.

- (10) ㄱ. 미끼를 피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 ㄴ. 낚시대, 낚시줄, 낚시바늘, 낚시봉, 낚시찌 등이 갖추어진 한 벌의 고기잡이 도구.
  - ㄷ. = 낚시질.
  - ㄹ.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를 피는 데 쓰는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1) ㄱ. 방법: 걸음낚시, 견지낚시, 고괘낚시, 꿰낚시, 끝낚시, 끝보기낚시, 놀림낚시, 닳낚시, 대낚시, 덕낚시, 던질낚시, 덧낚시, 들낚시, 띄움낚시, 릴낚시, 맥낚시, 미끼낚시, 방울낚시, 빨낚시, 설망낚시, 소경낚시, 속임낚시, 손낚시, 스침견지낚시, 실낚시, 앓힐낚시, 얼음낚시, 외줄낚시, 줄낚시, 찌낚시, 채낚시, 채찍낚시, 썰낚시, 털낚시, 털바늘낚시, 트롤링낚시, 활낚시, 훌치기낚시, 흘림낚시
  - ㄴ. 장소: 갯바위낚시, 계류낚시, 민물낚시, 바다낚시, 배낚시, 수초낚시, 시내낚시, 얼음낚시, 자리낚시
  - ㄷ. 도구: 릴낚시, 외줄낚시, 활낚시
  - ㄹ. 시간: 밤낚시 (총 53개)

(11)에서 보듯이 전체 합성어 중 ‘N<sub>1</sub>’으로 ‘방법’ 명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N<sub>1</sub>’이 ‘도구’ 명사인 경우는 단 네 개이다. 뿐만 아니라 (11ㄱ, ㄴ, ㄹ)는 ‘낚시질’이라는 뜻을 가지는 반면 (11ㄷ)은 ‘낚시질’과 ‘낚시도구’라는

---

12) 사전에 등재된 ‘낚시’합성어의 전체 목록을 보이면 ‘갯바위낚시, 걸음낚시, 견지낚시, 계류낚시, 고괘낚시, 꿰낚시, 끝낚시, 끝보기낚시, 놀림낚시, 닳낚시, 대낚시, 덕낚시, 던질낚시, 덧낚시, 들낚시, 띄움낚시, **릴낚시**, 맥낚시, 미끼낚시, 민물낚시, 바다낚시, 밤낚시, 배낚시, 방울낚시, 빨낚시, 설망낚시, 손낚시, 수초낚시, 스침견지낚시, 시내낚시, 실낚시, 앓힐낚시, 얼음낚시, **외줄낚시**, 자리낚시, 줄낚시, 찌낚시, 채낚시, 채찍낚시, 썰낚시, 털낚시, 털바늘낚시, 트롤링낚시, **활낚시**, 훌치기낚시, 흘림낚시’와 같다.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그것의 구성 방식과 뜻풀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 ㄱ. **릴(도구)+낚시**, **외줄(도구)+낚시**, **활(도구)+낚시**

ㄴ. **릴낚시**: ① 낚시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하는 낚시질. ② 낚시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도구.

**외줄낚시**: ① 한 가닥의 줄에 낚시바늘을 하나만 달아 고기를 잡는 일. ② 한 가닥의 줄에 낚시바늘을 하나만 달아 고기를 낚는 도구.

**활낚시**: ① 활 모양으로 되어 몇 개의 낚시를 달아 맨 손으로 하는 낚시질. ② 활 모양으로 되어 몇 개의 낚시를 달아 맨 손낚시

(13) ㄱ.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대낮에도 사람이 지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각시바우소 깊은 물에 종일 혼자 **릴낚시(낚시도구)**를 던지셨던 거예요.

ㄴ. 송어, 잉어, 향어 수백만 마리를 방류하고, 교통편이 편리해지면서 합천호에는 **릴낚시(낚시질)**의 성행으로 대낚시를 하기 힘든 것이 흠이다.

이 중 ‘릴낚시’는 ‘낚시도구’와 ‘낚시질’의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을 예문 (13)에서의 교체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들 합성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은 형태로는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에서만 구분할 수 있다. 아래 (14ㄱ)에서는 수식어인 ‘떡밥, 지렁이’를 통해 ‘릴낚시’가 ‘낚시질’임을, (14ㄴ)에서는 서술어 ‘방법이다’를 통해 ‘롤러낚시’가 ‘낚시질’임을 알 수 있다.

(14) ㄱ. 떡밥 **릴낚시**로는 참붕어·떡붕어·잉어, 지렁이 **릴낚시**로는 메기와 가물치가 잘 잡힌다.

ㄴ. **롤러낚시**란 낚시줄에 20 ~ 30 개의 겹낚시를 단 롤러낚시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낚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롤러가 달린 받침대를 뱃전에 설치하여 낚시줄을 롤러를 거쳐 자세로 감아올림으로써 오징어를 낚는다.<sup>13)</sup>

이처럼 언어사용자는 해당 어휘의 중의성을 (13, 14)와 같은 통사적인 전략

13) 예문 (13, 14)는 조민정(2013:125)에서 가져옴.

을 통해 해소한다. 때로는 ‘낚시’ 합성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N<sub>1</sub>’으로 ‘도구’보다 ‘방법’을 선택해 합성어를 만드는 조어법상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낚시’가 ‘도구’ 명사보다 ‘방법’ 명사를 주로 선택하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낚시’가 서술적 용법과 함께 도구라는 의미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낚시’ 합성어가 중의성을 가지는 것은 ‘낚시’가 본래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다의어인 데서 기인함을 살펴보았다. 하나 ‘경작, 재배’는 하나의 뜻만 가지기 때문에 이들 합성어가 두 가지 의미로 개념이 분화(변화)되는 것은 핵 명사의 의미(언어내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래 3장에서 ‘경작, 재배’ 합성어의 개념 확장 방식과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3. ‘경작, 재배’ 합성어의 개념 확장

#### 3.1. ‘N<sub>1</sub>’과 핵명사의 의미합성에 의한 개념 확장 - ‘경작’ 합성어

두 합성어를 구별(변별)하는 데 핵 명사가 아닌 선행 요소(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로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있다.

- (15) ㄱ. 정사각형: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ㄴ.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15)의 핵 명사인 ‘사각형’은 이들 합성어의 유형을 결정짓을 뿐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는 핵 명사가 아니라 ‘N<sub>1</sub>’인 ‘정’과 ‘직’이다. 이때 ‘정’과 ‘직’은 ‘사각형’과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으며 인접성을 가진다.<sup>14)</sup> 선행하는 ‘N<sub>1</sub>’이 합성어 전체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4) 사람들이 두 단어를 보고 연상하는 데 관련되는 연상의 양태와 범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성을 띠고 있는데(홍사만, 1985:57), 사람들이 사실을 정보로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경작’ 합성어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6) 가. 경작: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음.
- 나. 사면경작: 몹시 비탈진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
- 다. 조방경작: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들고 주로 자연력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방법.

위 (16가)에서 보듯이, ‘경작’은 단일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짓는 일(행위)’(16나)과 ‘경작하는 방법(방법)’(16다)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16다)에서 ‘방법’이라는 뜻은 핵 명사인 ‘경작(“농사를 지음”)’의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라는 뜻이 선행어 ‘조방’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사전에서 ‘조방(粗放)’은 “‘조방하다’의 어근”으로 풀이되어 있을 뿐 그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조방’의 뜻풀이는 각주 (9) 참조), 이 경우 ‘조방’이 전체 구성의 뜻인 “방법”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작’에 포함된 의미자질과 합성어의 선행 어기가 함께 ‘방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작’의 뜻풀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음”에서 ‘**땅을 갈아서**’는 [+농사를 짓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방식]은 장소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방경작’의 경우 ‘조방’이 그러한 방식을 [거칠게 → 자연력을 의존하여]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방경작’이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뜻은 핵 명사의 의미 자질과 선행어인 ‘조방(거칠게)’이 함께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합성에 의해 의미 파생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인접연상에 의한 의미 전이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합성어를 이루는 두 요소가 ‘유-종’, ‘전체-부분’, ‘고유명사-보통명사’, ‘원인-결과’ 등으로 관련성이 있을 때 제유법에 의한 인접연상이 가능한데, ‘경작’ 합성어에서 ‘N<sub>1</sub>(방법)’은 ‘N<sub>2</sub>(행위)’의 부분을 차지하여 두 요소는 인접되어 있고, 그 결과 인접연상에 의해 의미 전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 의미가 전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

---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강현석 외역(2009:225-6) 참조).

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상을 인식하는 화자의 의식에서 중심이 옮겨간 것(초점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 (17) ㄱ. 계단^경작: 비탈진 땅에 계단 모양으로 층층이 논밭을 만들어 하는 경작.  
 ㄴ. 공동^경작: 둘 이상의 농가나 마을 전체가 논이나 밭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농사짓는 일.  
 ㄷ. 단일^경작: 한 농경지에 한 종류의 농작물만을 심어 가꾸는 일.  
 ㄹ. 등고선^경작: 등고선 모양으로 비탈을 갈아 농작물을 가꾸는 일.
- (18) ㄱ. 이동^경작: 비료를 쓰지 않고, 한 곳에서 여러 해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짓는 원시적인 농사 방법.  
 ㄴ. 집약^경작: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들여 일정한 경지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경작 방법.  
 ㄷ. 청부^경작: 모심기에서 추수까지의 벼농사를 계약에 의하여 청부하는 형태.

또한 (17)은 ‘짓는 일(행위)’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17ㄱ-ㄷ)의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변별하는 것)은 핵 명사가 아니라 밑줄 친 ‘계단 모양으로 층층이 논밭을 만들어(17ㄱ),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17ㄴ), 한 종류의 농작물만을(17ㄷ), 비탈을 갈아(17ㄹ)’임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17ㄱ-ㄷ)의 밑줄 친 부분은 선행어의 의미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7)의 합성어 전체 의미는 ‘농사를 짓는 일=행위’를 가리키지만 그 각각의 차이는 ‘계단, 공동, 단일, 등고선’이라는 선행어가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5)</sup>

반면 ‘방법’으로 풀이된 (18)에서 ‘N<sub>1</sub>’의 ‘이동, 집약, 청부’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합성어의 의미를 ‘행위’가 아니라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핵 명사가 합성어 전체의 뜻을 결정하는 ‘남시, 농사’ 합성어와 다른 양상이다.

‘경작’ 합성어가 지시하는 행위들을 변별하는 기능은 선행어가 담당하고, ‘경작’에 포함된 [방법]이라는 의미 자질과 선행어의 의미가 함께 [경작 행위]

15) 선행어에 포함된 의미자질이 단어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신/꼬까신’을 들 수 있다. ‘신’과 ‘꼬까신’은 유의관계를 이루는데, 그 둘은 ‘꼬까’에 내포된 [어린아이]라는 자질로 구분된다.

로부터 [경작 방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미)을 만든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작’ 합성어의 언어적 경험과 그러한 행위를 둘러싼 앞선 지식들은 이후에 만들어진 동일 계열의 ‘재배’ 합성어의 선행어 선택 및 개념 분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2. 관련어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념 확장 - ‘재배’ 합성어

### 3.2.1. 초점조절에 의한 선택과 인접성으로 인한 개념 확장

여기의 기원으로 보면 ‘재배’ 합성어는 ‘한자어+한자어(密栽培)’, ‘고유어+한자어(물栽培), 외래어+한자어(house栽培)’의 구조를 가진다. 또한 두 구성 요소가 맺는 의미관계로 보면, 주로 수식-구성에 해당되고 두 구성 요소는 ‘방법-행위’라는 제유(提喻)법에 의해 인접성을 가진다.

관련어인 ‘농사’는 (47)에서 ‘논농사, 밭농사’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쌀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밀농사’에서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선행어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만들고, ‘N<sub>1</sub>농사’는 ‘농사를 짓는 일=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합성어 간의 차이는 선행어의 의미역이 다르므로 만들어진다.

또한 ‘경작’ 합성어는 (16-18)의 ‘사면경작, 조방경작, 계단경작, 공동경작, 단일경작, 등고선경작, 이동경작, 집약경작, 청부경작’에서 보듯이, 주로 경작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명사를 선행어로 취하여, 주로 ‘행위’를 나타낸다. 그런데 ‘재배’ 합성어가 ‘농사’ 합성어와는 선행어 선택에서 다르고 ‘경작’ 합성어와는 개념 변화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로 ‘N<sub>1</sub>재배’를 분류한 (19-21)에서 우리는 이들 합성어들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9) ㄱ. 계단식 재배: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한밭에서 작물을 계단식으로 여러 번 길러내는 일.

- ㄴ. 밀재배: 남몰래 심어 가꾸는 일.
- ㄷ. 왜소화재배: 과실나무나 화초를 작게 기르는 일. (총 3개)

(20) ㄱ. 망실재배: 유리로 지붕을 하고 그물로 둘러싼 방을 만들어서 하는 재배 방법.

- ㄴ. 무대재배: 사과, 복숭아, 배 따위의 과실을 봉지를 씌우지 않고 가꾸는 방법.
- ㄷ. 물재배: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녹인 배양액만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
- ㄹ. 작휴재배: 이랑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방법. (4개)

(21) ㄱ. 행위: 계약<sup>^</sup>재배, 계통<sup>^</sup>재배, 등고선<sup>^</sup>재배, 무공해<sup>^</sup>재배, 불시<sup>^</sup>재배, 연속<sup>^</sup>재배, 연화<sup>^</sup>재배, 온상<sup>^</sup>재배, 온실<sup>^</sup>재배, 접목<sup>^</sup>재배, 조기<sup>^</sup>재배, 종묘<sup>^</sup>재배, 채종<sup>^</sup>재배, 청정<sup>^</sup>재배, 편의<sup>^</sup>재배, 하우스<sup>^</sup>재배, 혼성<sup>^</sup>재배 (총 17개)

- ㄴ. 방법: 계획<sup>^</sup>재배, 고등<sup>^</sup>재배, 높은이랑<sup>^</sup>재배, 두둑<sup>^</sup>재배, 밀식<sup>^</sup>재배, 비닐<sup>^</sup>재배, 속성<sup>^</sup>재배, 억제<sup>^</sup>재배, 역경<sup>^</sup>재배, 이랑<sup>^</sup>재배, 전조<sup>^</sup>재배, 조명<sup>^</sup>재배, 조숙<sup>^</sup>재배, 직파<sup>^</sup>재배, 차광<sup>^</sup>재배, 차폐<sup>^</sup>재배, 초생<sup>^</sup>재배, 축성<sup>^</sup>재배, 터널<sup>^</sup>재배, 테라스<sup>^</sup>재배, 펠릿<sup>^</sup>재배 (총 21개)

위의 예문에서 ‘재배’가 선행어와 함께 ‘행위’를 나타내는 합성어는 (3개), 임시 합성어는 (17개)인 반면 ‘방법’을 나타내는 합성어 (4개), 임시 합성어 (21)개임을 볼 수 있다. 수로 볼 때 ‘재배’ 합성어는 주로 ‘방법’의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배’ 합성어에서 방법 명사( $N_1$ )가 핵 명사 ‘재배’의 선행어로 선택된 것은 ‘초점 조절에 의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N_1$ ’이 초점 조절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재배’의 선행어로 선택되었다고 본 근거는 언어사용자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sup>16)</sup> 즉 “식물을 심어 가꾸는”이라는

16) 장면은 여러 관찰점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특정한 관찰점을 선택하면, 그 관찰점에 의해 장면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렇게 달라진 장면 중 하나는 ‘전경’이 되고, 다른 것은 ‘배경’이 된다. 먼저, ‘전경’은 관찰점에서 가장 인접한 장면 부분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경’에 있는 것(참여자)은 관찰자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배경’보다 더 뚜렷하고 쉽게 지각된다. 그래서 전경의 물체가 장면 내에서 모습으로 지각되어 주의의 초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은 ‘배경’에 해당된다(Langacker, 1998:130-132).



‘재배’의 뜻풀이로는 다양한 ‘N<sub>1</sub>재배’의 의미 차이 즉 행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오히려 언어사용자는 선행어인 ‘N<sub>1</sub>’의 다름 즉 방법의 차이를 근거로 ‘N<sub>1</sub>재배’의 차이를 인식한다. 비슷한 경우를 파생어인 ‘목거리, 턱거리, 불거리’에서 볼 수 있다(홍사만, 1985:203-4). ‘목거리, 턱거리, 불거리’에서 ‘-거리(~에 난 중기)’는 범주적 혹은 분류학적 구조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그 중기의 모양 및 병의 증상을 구분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어 ‘목, 턱, 불’이다.

결국 방법 명사(N<sub>1</sub>)가 ‘재배’ 합성어들의 의미 차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초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방법’ 명사가 다양한 재배 행위를 구분하는 관계로 언어사용자의 의식의 중심이 핵 명사에서 ‘N<sub>1</sub>’으로 옮겨가면서 의미가 ‘행위’에서 ‘방법’으로 전이(개념의 분화됨)되었다고 본다.

화자의 의식에서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는 ‘초점 조절에 의한 선택’과 유사하나 합성어를 만드는 두 요소의 인접연상에 의한 것으로 의미 전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재배’ 합성어에서 ‘N<sub>1</sub>(방법)’이 ‘N<sub>2</sub>(행위)’의 부분을 차지하여 두 요소는 인접되어 있고, 그 결과 인접연상에 의해 의미 전이가 ‘행위 → 방법’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언어사용자의 의식에서 중심이 핵 명사가 나타내는 ‘행위’에서 선행어가 나타내는 ‘방법’으로 완전히 이동함에 따라 ‘방법’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배’ 합성어가 주로 ‘방법’ 명사를 선행하게 된 것은 시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이루어진 ‘경작’ 합성어를 둘러싼 언어적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7)</sup> ‘재배’ 합성어는 ‘경작’ 합성어보다 시기적으로 이후에 만들어지며, 1960년대 이후에는 ‘경작’ 합성어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언어 외적인 영향(농업 정책<sup>18)</sup>, 예문

17) 화자가 경험적으로 가진 선지식이 초점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선이해는 경험적 선지식과 선행적 선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언어 사용자는 경험적 선지식에 의해 새로운 현상을 초점화한다(슐라이마허의 해석학, 2000:161-162). 이 말은 화자가 경험적 선지식에 의해 주어진 현상을 주제적인 지식과 비주제적 지식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농사’는 1980년대를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은행(1971)과 농촌경제연구원(2003, 2012)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5(37%), 1970(24.1%), 1980(12.6%), 1985(10.7%), 1990(7.3%), 1995(5.3%), 2000(4.1%)로

22, 23 및 그림 1 참조)도 들 수 있다. 즉 식물 및 작물을 키우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개발되고, 이어 그것을 지칭하는 ‘방법’ 명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후 ‘재배’가 ‘N<sub>1</sub>’과 함께 합성어를 이루게 되고 ‘N<sub>1</sub>재배’ 구성 전체가 행위가 아닌 ‘기르는 방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러한 사용 양상을 3.2.2.에서 구체적인 신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자.

### 3.2.2. 농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념과 생산성 변화

‘재배’ 합성어 중 지면에서 처음 선보인 것은 ‘집약재배’이다(22ㄱ). 당시 재배 대상은 ‘면화, 아편, 연초, 과수, 소채(蔬菜)’가 주종을 이룬다. 그렇지만 ‘대상명사+재배’는 합성어가 아닌 통사적 구구성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사냥, 낚시, 경작’ 합성어와 동일하게 재배의 대상은 식물로 언제든 머릿속 어휘부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릿속 어휘부에 합성어로 등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22) ㄱ. 優良品種普及을 爲하야 系統的의採種畝를設置케하야最下級の採種畝에 對하야는補助金を交付함과三棉作을**集約栽培**코자新히指導里洞을設置케하야 (동아일보, 1922,12,10. 2면)
- ㄴ. 栽培에屬하는者에對하야는 模範栽培를하고 地方民을 指導하며또는 年初**契約栽培**로써 收入金の 最低保險을하야 積極的으로 朝鮮과 連絡할 것(동아일보, 1929.1.15. 8면)/E-마트는 1차 식품 품질과 맛을 높이고 경쟁점포와 차별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강화한다. (매일경제, 1999. 6. 23. 19면)
- ㄷ. 치안본부는 6일 억대의 양귀비를 **밀재배**(하여), 생아편으로 만들어 팔려던(동아일보, 1976.11.6. 7면)
- ㄹ. 산비탈을 깎아 벼를 재배하는 **계단식재배**(계단식농법)와 **화학비료**의 남용이 쌀생산량을 감소시키는(동아일보, 1991. 2. 11. 8면)

---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수와 농가인구는 2000(1,383천호, 4,851명)에서 2010(1,177천호, 3,063명)으로 감소하면서 평균가구원 수는 2.9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고, 가구원 연령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재배’ 합성어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22ㄴ)의 ‘계약재배(2,363회/24,901회)’이다. 이러한 재배 방식은 일본의 회사와 한국 농민이 연초(담배)와 면화를 재배·수확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타났고, 이 방식은 계획적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유로 도입되었다. 이후 계약재배는 대형마트와 농민이 계약하여 재배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22ㄹ)의 ‘계단식재배’는 1960년대의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60년대 초 노후화답 및 생산지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증산 활동의 일환으로 계단식 토지를 개간하게 되고, 그렇게 개간된 땅에 ‘딸기’와 같은 과수를 재배하는 방법이 소개되면서 ‘계단식재배’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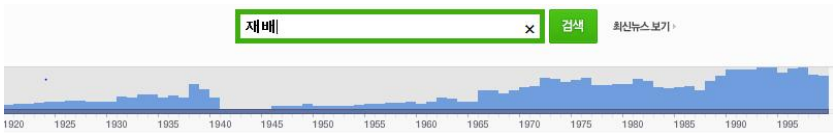
- (23) ㄱ. 망실내에서 화분을 인공으로 매조하거나 혹은 밀봉의일군을 망실내에서 감금시켜서 강실내식물상호의 수정만 되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망실법** (재배법)이라 한다.(동아일보, 1938. 1. 30. 7면)
- ㄴ. 不毛의 大關嶺에 심은 意志30년 한국최초 **特殊재배법** 창안. 強風 눈속서 푸르게 되살린 頂上山竹바람막이 百%효과(경행신문, 1975.12.06. 7면)
- ㄷ. 일본에서는 황색바탕에 적색의 과실이 우리나라에서 **무대재배**를 하면 황색에 적색이 약간 있는정도이고 봉지로 씌우면(매일경제, 1981.9.2.10면)
- ㄹ. 그는 절대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속성재배**는 하지않고 **露地재배**만을 고집합니다.(동아일보, 1978. 3. 20. 6면)
- ㅁ. 농촌진흥청은 쌀 생산비를 줄여 수입개방에대응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농법**을 내년부터 10만 ha로 확대하고 점차 70만 ha까지 확대 재배키로 했다.(동아일보, 1993. 10. 5. 27면)

특수재배법과 관련된 ‘재배’ 합성어의 출현은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농정의 기본목표를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향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 국가의 농업 정책과 같은 구조적 압력에 대해 농민들은 농지의 임차를 통하여 소작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H, 사례연구 6-1)과 환금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소득 증대를 이루려는 전략<sup>19)</sup>으로 대응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 두 번째 전략은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의 노동, 작물의 재배에 보다 섬세한 기술을 요하므

다양한 재배 방법의 개발과 함께 ‘재배’ 합성어가 새로이 만들어져 활발하게 사용되었다.<sup>20)</sup>

‘경작, 재배’ 합성어의 생산성은 농업 구조의 변천과 시대별로 달라지는 산업정책과 같은 국내의 상황, 우르과이라운드, 한·칠레 FTA체결과 같은 대외적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기술과 방법의 개발과 관련되었음을 시대별 예문(네이버 뉴스라이브리 참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재배’ 합성어의 출현 빈도,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먼저, 1960년대에는 다각적인 농업 기술의 개발로 ‘경작’ 합성어들이 주로 만들어졌고, 다음으로 1960년대 후반 1970년 이후 ‘재배’ 합성어들이 활발히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1970년 이후 채소와 과일의 소비는 약 2배로 증가하는데, 이를 위해 작물 품종의 육종 재배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농업 기계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 결과 전통적인 논벼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특용작물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화훼, 과수, 양잠 등 재배 면적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품종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의 중에서도 사과(15.1%), 복숭아(6.2%), 기타 과수(108.1%)의 재배 농가는 증가한 반면, 배(-26.3%), 포도(-14.9%), 감귤(-6.8%)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김경덕 외, 2012:

로 풍부한 가족 노동력과 생산의욕 그리고 가족 경제 규모가 상당할 때 선택된다. 자세한 것은 조승연(2000:236-241) 참조.

20) 이 논문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배’ 합성어들이 신문에 출현한 빈도는 ‘계약재배(2,463건), 하우스재배(1500건), 온실재배(162건), 속성재배(152건), 직파재배(113건), 집약재배(160건), 망실재배(1건), 무대재배(1건)’ 등과 같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참조.

87-88).<sup>21)</sup> 그 결과 새로운 ‘재배’ 합성어가 등장하고 또한 그러한 말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이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 육성을 위해 작물·가축의 재배, 사양 기술을 첨단화하는 연구와 사업이 시행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속성재배, 직파재배’와 같은 다양한 재배 방법(23르, ㄱ)이 고안되고 사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재배’ 합성어들은 기르는 ‘행위’가 아니라 기르는 ‘방법’의 뜻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N<sub>1</sub>경작, N<sub>1</sub>재배’ 구성에서 ‘경작’은 ‘N<sub>1</sub>’으로 ‘방법, 도구명사’를, ‘재배’는 ‘방법, 장소명사’를 주로 선택하는 이유를 첫째, ‘앞선 경험과 언어 활동의 축적에 의한 차별화 전략’과 같은 언어내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둘째, ‘재배’ 합성어의 형성 및 개념의 분화가 발생한 것을 농업 구조의 변화와 대외적 농업 환경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방법명사+경작’ 합성어가 본래 ‘행위’를 나타내다가, ‘경작’에 포함된 [땅을 일구는 방법]과 ‘방법’ 명사가 함께 ‘방법’이라는 의미를 분화하는 것을 언어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반면 ‘재배’ 합성어는 ‘행위’보다 ‘방법’을 더 많이 나타내는데, 이는 한편으로 ‘경작’ 합성어에 대한 선지식(앞선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작’ 합성어에 관한 선지식이라는 언어적 요인과 더불어 농업의 식량증산 운동, 경제개발계획,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한·칠레 FTA 체결 등 농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요구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농경법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결과 ‘재배’ 합성어가 활발히 만들어지

21) 이는 한·칠레 FTA체결과 포도를 중심으로 폐원 보상과 작목 전환 등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경 조치가 있는 사과와 품종의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려워 수입이 제한되는 복숭아 쪽으로 재배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재배’ 합성어는 ‘행위’가 아니라 ‘방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특징임을 3.2.2.에서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N<sub>1</sub>경작, N<sub>1</sub>재배’ 형성 시 ‘N<sub>1</sub>’ 선택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단어가 사용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언어사용자들의 인지 구조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를 둘러싼 언어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는 유사한 구조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영근 외(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강돈구(2000), 슬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이동희 옮김, 이학사.
- 김광혜(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1-29.
- 김광혜(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남기심(1983), “새말의 생성과 사멸”, 이기문 외,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노대규(1982), “국어의 복합어 구성 법칙”, 인문논총 4, 한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26.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295-325.
- 송현주(2010), “한국어 합성어에 나타난 동기화 양상”, 한글 289, 한글학회, 125-141.
- 신현숙(2004), “어휘 정보와 문화 정보: {옷/밥/집}”, 한국어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5-142.
- 신희삼(2008), “N<sub>1</sub>+N<sub>2</sub>의 의미구조 연구”,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103-122.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국립국어연구원, 25-39.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전영미·최동주(2007),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37-70.
- 조승연(2000),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생산구조, 서경문화사.
- 조민정의(2011), “합성명사 형성 및 개념 확장 방식에 대한 논의”,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회, 281-304.

- 조민정(2013), “해 명사의 논항 선택과 생산성 결정 요인-‘사냥’과 ‘낙시’ 합성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111-139.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채현식(2006),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화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학회, 5-23.
- 하치근(2009),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도서출판: 경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1990·1995·2000 농업 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경희정보인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2000·2005·2010 농업 총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은행(1971), *한국산업구조의 재편성*, 삼성인쇄주식회사.
- 홍사만(1985), *국어어휘의미연구*, 학연사.
- Downing, P.(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810-842.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김종도역(1998), 박이정.
- Asher, N.(2011), *Lexical Meaning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kinghorne, D. E.(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강현석 외 역(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 Ullmann, S.(1957), *The Principle of Semantics*, Glasgow: Jackson and Oxford: Basil Blackwell.
- Tomlin, R. S.(1986), *Basic Word Order*, Croom Helm: Kent.
- Williams, E.(1981), “On the notion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word’”, *Linguistic Inquiry* 12:2, 245-274.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편(1996),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1988),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임홍빈(1993), 『한국어사전』, SISA Education.
- 한글학회(편)(1992),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3).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2003).
-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Merriam-Webster Incorporated (198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20-749

전화 번호: (02) 2123-8250

전자 우편: jeni010@yonsei.ac.kr      FAX: (02) 393-5001

원고 접수일: 2014년 02월 28일

원고 수정일: 2014년 03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3월 25일